

미래 에너지 사업 비전 모색...전남을 에너지 수도로



26일 운병태 나주시장이 나주시 빛가람동 컨택 대강당에서 개최된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4'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남을 미래 에너지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너지분야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등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미래 에너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4'이 이날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컨택)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컨택 일대에서 27일까지 열리며 첫날 기조연설과 분산에너지를 주제로, 이튿날에는 수소에너지와 원자력, 핵융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기조연설 강연은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

의' 저자인 미국 UC 버클리대 리처드 물러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물러 교수는 강연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꼽고, 지구 생태계 변화에 대해 인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물러 교수는 인간이 지난 60여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 및 지구온난화 현상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중지된다면 지구 온난화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물러 교수는 기조 강연을 마친 뒤 박진호 컨택 총장 직무대행과 대담, 포럼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진 '분산에너지' 기조강연은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남한과 세상을 100% 깨끗하게 변화시키다,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분산에너지의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 주제발표는 문일주 한전 에너지

생태계조성처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의 분산전원 활성화 전략',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RE100 현황과 기업의 대응', 서정철 LS일렉트릭 최고기술책임자 '분산에너지 시대 LS일렉트릭의 비전 및 전략',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 '직류산업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김윤신 전남에너지산업 협회장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 ESS의 기능과 조건' 순으로 이뤄졌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이 열린 컨택 일원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인재를 채용하는 '잡 페스티벌'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재 2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했다. 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4개사에서 공공기관 취업 컨설팅을,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고용 정책관들은 대학진학부터 취업까지 다방면의 상담을 진행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25.6%가 '독거 노인'

목포·여수·순천 1만명 넘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 5000가구로 213만 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47만 874명(2023년 말 기준) 가운데 25.6%인 12만 633명이 독거노인이다. 목포(1만1475명), 여수(1만 3470명), 순천(1만 1689명)은 모두 독거노인이 1만 명이 넘었고 진도의 독거노인 비율이 30.4%(3219명)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20.7% 수준이었다.

소비 만족도는 더 낮아 각각 41.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남도장터, 추석 명절 기획전으로 매출 130억원 달성

시·군 상생기획전 등 연계 마케팅 효과 톡톡...다양한 특판행사 계획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지난달부터 진행된 추석 명절 기획전 기간에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최근 남도장터 연간 매출의 20%를 웃도는 판매고를 추석 기획전 기간동안 달성한 것으로, 소비 위축과 생산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는 농수축산 업계에 활로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따르면 남도장터 211개 입점업체가 참여해 7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전은 사인머스켓, 사과, 배, 한우, 전복, 쌀·잡곡 등을 필두로 한 선물세트·제수용품이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동시에 진행된 시·군 상생기획전, 바다직송 수산기획전 등 여러 특

판행사와 연계해 최대 40% 파격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단골고객 관리를 통해 재구매율을 높인 전략이 주효했다. 수도권 등 전국 KTX역·대형건물 전광판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IPTV 광고, 프루야구 시구 등 대대적인 홍보도 고객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이번 추석 명절에 남도장터를 많이 애용해 주신 덕분에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다양한 기획전 등을 통해 고객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현재 시·군 상생협력 기획전, 은빛장터, 백야장

터, 수요장터 등 다양한 특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젓갈 등 김장기획전과 함께 제철상품 특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671.57 (+75.25)
코스닥	779.18 (+19.88)
금리(국고채 3년)	2.800 (-0.012)
환율(USD)	1328.55 (-2.45)

건설기술인 1200명 모여 들썩인 구레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1200여명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등이 구레에서 위기의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설 기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26일부터 이틀 간 구레에서 대한토목학회를 비롯, 대한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업계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사회간접자본(SOC) 현황과 전남의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될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토목·건설업계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중소 건설업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전남도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내용 등도 소개된다.

앞서, 전남도는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비 등 사회

간접자본 분야 예산 7029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연찬회 기간 광주·전남 건설 관련 분야 청년 대학생들과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토목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등도 논의한다.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저터널 설계 시공 현재와 미래' (고려대 최항석 교수)라는 주제발표와 '인공지능(AI) 시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조선대 정명훈 교수), '한전의 해상풍력 연구개발 현황' (한국전력 김지영 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 발표 등도 소개된다.

1200여명의 건설기술인들이 한꺼번에 모여 들면서 행사장으로 사용된 호텔이 가득 차고 인근 식당에도 학회 참석자를 발걸이 잇따라는 등 모처럼 구레 지역사회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설 가족 모두가 제도약하는 기회와 희망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 힘껏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등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